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2)

#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의도와 결과 사이의 역사적 아이러니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라는 말은 원말(元末), 천하의 제패를 두고 벌어진 피양호(鄱陽湖) 전투를 마친 뒤 주원장(朱元璋)이 진우량(陳友諒)을 향하여 내린 평가이다. 주원장은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마침내 원 왕조를 복고로 몰아내고 명(明) 왕조를 건설하였다. 하나의 전투, 하나의 판단이 이후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불명확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승리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의도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거듭 보여준다.

미국의 군사사가 케네스 헤이건과 이안 비커튼은 약 200년에 걸친 미국의 전쟁을 분석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서 전쟁은 시작할 때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동시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모습은, 전쟁이 결코 단순한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자는 분명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의 전개는 그 의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속사치통감에 기록된 원말의 피양호 전투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주원장과 진우량이 맞붙은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천하의 항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수군(水軍)에서 우세하였던 진우량은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홍도(洪都, 현재의 남창)를 포위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상대를 고립시키고 결정적 승리를 통해 패권을 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誤判)이 숨어 있었다. 당시 주원장의 근거

지였던 건강(健康, 오늘날의 남경)은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진우량은 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홍도 공략에 집착하였다. 이는 전쟁의 중심을 잘못 설정한 선택이었다. 만약 그가 건강을 직접 타격하였다면 주원장은 근거지를 잃고 전세(戰勢)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외면한 채 눈앞의 공략 대상에 매달렸고, 이는 결국 전체 전략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쟁의 전개 역시 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진우량은 과거의 성공에 의존하여 거대한 합선을 쇄사슬로 연결하는 전법을 다시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원장은 이를 예상하고 성을 물가에서 뒤로 물려 동일한 전법에 통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이번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반면 주원장은 자신의 조건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소규모 선박과 화공(火攻)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전투는 여러 차례 위기와 반전을 거치며 전개되었고,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주원장 역시 결코 여유로운 상황에 있지는 않았다.

적지 않은 장점을 잃고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일부 장수들이 퇴각을 건의하였으나, 주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군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 먼저 물러나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라는 그의 판단은 전장(戰場)의 흐름을 읽은 결정이었다. 이 선택은 전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진우량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장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그는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일부 장수들이 항복하면서 군심(軍心)은 급격히 무너졌다. 전략의 오류 위에 결단의 지연이 겹치면서 패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세를 바꾼 계기는 바람을 이용한 화공(火攻)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라기보다, 상황을 읽고 기회를 포착한 판단의 결과였다. 주원장은 뜻의 색을 통일하여 적의 식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만전술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선택들이 겹치면서 전세는 점차 기울어 갔다.

이 전투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전쟁의 결과는 처음 세운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과 우연,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그때의 판단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진우량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표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반면 주원장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상황에 맞는 선택을 이어가며 결국 승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과 몇 년 뒤 왕조의 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상황을 바라보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미 충돌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이 단순히 시작과 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장과 협상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의 의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의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이다. 핵심을 놓친 선택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판단의 지연은 그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는 피양호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로운 교훈이다.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라는 말은 단순한 승자의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의 핵심을 놓치고 판단의 순간을 흘려보낸 자에게 내려지는 역사적 경고이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의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 속에서 판단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 그 점을 놓치지 않는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 대간대악(大奸大惡)

큰 대. 간사할 간. 악할 악.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는 뜻으로 극도로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역사적으로 권력남용, 부패, 사기, 배신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붙여집니다.

## 대교약졸(大巧若拙)

공교로올 교. 같을 약. 옹졸할 졸.  
매우 뛰어난 솜씨나 재주가 겉으로는 서툴거나 평범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능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도가(道家)적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겸손과 자연스러움, 내면의 깊이를 중시하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 대경失色(大驚失色)

놀랄 경. 잃을 실. 빛 색.  
크게 놀라 얼굴 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매우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혼비백산(魂飛魄散)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있습니다.

## 대경대법(大經大法)

지날 경. 글 경. 법 법.

공명정대한 큰 원리와 법칙  
대경과 대법은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경은 큰 경전 대법은 근본 가르침을 뜻합니다. 대경은 주로 ‘화엄경’을 가리키며, 대법은 불교의 핵심 교리나 진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대공무사(大公無私)

큰 대. 공평할 공. 없을 무. 사사로울 사.  
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 사사로움 정에 없애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공적인 일처리에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유래: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평공이 기황양에게 남양현령과 군위(軍鬪수) 적임자를 물었고 기황양은 해호와 자신의 아들을 추천하며 “적임자를 물으셨지 관계를 묻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답했다.

공자는 “공직을 추천하는데 원수라 배제하지 않았고 아들이라 피하지 않았으며 기황양이야말로 대공무사하다”고 평했습니다.

## 대공지정(大公至正)

큰 대. 공평할 공. 이를 지. 바를 정.  
아주 공평되고 지극히 올바름을 뜻하는 말로 공명정대와 유사합니다.

## 대기만성(大器晚成)

그릇 기. 늦을 만. 이를 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유래: 노자 제41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뜻은 “큰 그릇은 될 것처럼 보인다”였으나, 지금은 크게 될 사람은 오랫동안 공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으로 쓰입니다.

비슷한 서양 속담으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있습니다.

## 2026년 능우회 4월 격월회의 개최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갑) 주최 4월 격월 월례회가 4월 14일 오후 6시 안동시 강남로404 (정상동) '뽕키요' 식당에서 능우회원 총 35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권중의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시조 묘소 참배에 이어 권오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더라도 불구하고 월례회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회장 인사가 끝나자 권중의 국장은 “오는 5월 25일 영주에서 개최하는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와 오는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릉 내 현릉(顯陵)에서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 기신제향(忌辰祭享)이 문종대왕(文宗大王)의 기신제향과 함께 개최함에 따라 능우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권 국장은 최근 권오갑 회장과



권대균 회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는데 축하 박수를 보내자고 해서 많은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능우회는 영주에서 개최하는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 때 참석하

는 능곡회에 찬조금 30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닭갈비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 안동권씨 영해오봉공문중 오봉공학술발표회 개최

안동권씨 영해오봉공문중이 주관하는 장릉유신(莊陵遺臣) 권책(權策)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내빈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선 입장객에 서빙과 동시에 현금 5만원이 든 봉투와 오봉공학술발표논문 책 1권, 권대균씨(옛골토성 대표)가 증정한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와 함께 안동권씨 영덕종친회, 오봉공 며느리모임 등 각계 각층에서 보내 온 대형화환 30여개가 행사장 주변 벽면을 가득 매웠다. 행사장 입구에는 영덕 읍미회 소속 부인들이 직접 만든 각종 떡과 차를 내빈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권중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권영종 학술발표준비위원회 간사가 내빈을 소개하였다. 신성화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장, 신영순 영덕문화원장, 신의호 영덕향교 전교, 박삼락 영해향교 전교, 김대일 성균관유도회 영덕지부장, 임해식 백산김도현선생 숭모회장, 이종섭 성균관유도회 영해지부장, 박시영 답사회 영덕지회장, 박석원 신돌석장군 숭모위원장, 권병윤 전 영해향교 전교, 이원홍 재령이씨 갈암공 종손, 남석규 영양남씨 나고공 종손,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회장, 권원오 박약회 수석부회장, 이충섭 안동향교 전교, 한기학 박약회 안동지회장, 권주연 안동권씨원로원 고문, 권호준 부정공파총회장, 권오신 좌윤공파총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총회장, 권순용 부정공



파 대구문목회장, 권용주 성균관유도회 안동지부장, 권종규 자은회 회장, 권승호 부정공파 파총회 고문, 권상규 부정공파 봉사공 주선, 권대균 안동권씨 대종회 부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시무국장, 권형성 연일향교 전교, 이병철 전 광복회 경북도지부장, 조용택 전 성주교육장, 조철로 전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장 등이다.

내빈 소개가 끝나자 권해기 학술발표준비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씨 15세(世)에서 21세(世)까지 7대에 걸친 사적 경모록(景慕錄) 오봉실기가 출판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영국씨는 축사에서 “17세(世) 권자홍(權自弘)의 첫째 아들 저(箒), 둘

째 아들 서(箒) 등 두 아들은 단종복위 계획이 실패하여 사육신과 함께 극형에 처해졌다. 셋째 아들 책(策)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북 영덕군 영해로 유배되었다. 당시 나이가 10세이며 임향조이다. 오봉(五峯) 권책(權策)은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의친(懿親)이다.

학술발표회의 주제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장릉유신(莊陵遺臣) 권책(權策)의 충의(忠義)와 지절(志節) - 발표: 한영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오봉(五峯) 권책(權策)의 가필(家閥)에 대하여 - 발표: 이영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권영건 보도부장

## 추밀공파 호당공 세향제 봉행



안동권씨 사시(四始)의 주역, 호당공(湖堂公, 휘 채探) 세향제가 4월 11일 전북 정읍시 용동면 산성리 칠전(柒田)마을에서 시조 후 17세 호당공 선조의 세향제가 봉행되었다.

호당공은 검교좌정승을 지낸 정간공(靖簡公, 휘 회偁)의 손자이자 성균관 대사성과 제학을 역임한 매헌공(梅軒公, 휘 漣)의 차남이며 문종공(文宗公)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조카로서 명문가의 기틀을 이은 인물이다.

특히 공은 우리 안동권문의 자랑인 사시 중 하나인 독서당(讀書堂) 최초 입소

의 주인공이다.  
사시(四始)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成化譜), 최초의 대제학 배출, 연로한 고위 문신을 예우하는 기로소(耆老所) 최초 입소, 그리고 독서당 최초 입소 등 우리 가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구어낸 네 가지 위업을 뜻한다. 독서당은 세종대왕이 젊은 인재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내린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에서 기원한다.

오늘날의 안식년제와 비유될 수 있는 이 명예로운 제도에 우리 선조께서 첫

수혜자로 선발된 것이다. 당시 독서당이 수려한 풍광의 한강변에 위치하여 호당(湖堂)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기에 공의 칭호 또한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공의 단소자 위치한 산성리 당산 아래 재사 양호재(洋乎齋)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호당공 종회 권혁승 회장을 비롯하여 전북 지역 종친들과 서울에서 전세버스 편으로 내려온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7세 호당공 이하 28세 휘 통(統)까지 12위에 봉사하였다.

권순만 매헌공 사무국장